《북의 건설의 대번영기가 세상을 놀래우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층의 반향-

미래과학자거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살림집건설열풍 부는 북》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해마다 공화국의 각지에서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는데 대해 놀라와하며 이렇게 보도하고있다.

-《북은 당 제8차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책기조로 정한 후 그 실천을 위한 조치들을 꾸준히 취해오고있다. 그중 대표적인것이 살림집건설이다. 이것은 그만큼 북이 평양시살림집건설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지금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신화가 창조되고있다. 평양속도는 6.25전쟁직후 폐허가 된 평양을 빠르게 복구할 때 나왔던 구호로서 북은 당시 평양속도라는 속도전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였다. 북은 1950년대후반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공업분야의 장성률을 높이고 식량생산을 늘였다. 이번에 또다시 평양속도를 벌려 형언할수 없는 어려운 난관속에서도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려 하고있다.》

-《위성사진을 통해 본 1만세대 살림집건설현장에서는 〈력대급〉으로 표현할 정도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중인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북의 언론들이 련일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다고 선전하는것이 전부 사실이라는것이 밝혀졌다.》

-《김정은국무위원장시대 살림집들을 보면 북사회의 몰라보게 달라지는 변화상이 담겨져있다. 주택공간과 편의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대규모복합단지도 눈길을 끄는데 모두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직접 착상한것이라고 한다. 제재와 자연재해, 악성전염병사태의 〈3중고〉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과이고보면 놀라움에 앞서 경탄을 금할수 없다. 누구나 의문시하면서도 경이적인 모습이여서 선망의 눈길로 보게 되는것이 북의 건설실상이다.》

화려하고 특색있는 건축물들

남조선의 각계층에서는 세계적수준의 화려하고 특색있는 건축물들이 공화국 도처에 일떠서고있다고 경탄하고있다.

-《새로 건설된 삼지연시만 보아도 낮은 층의 삼각지붕주택들이 바늘잎나무들속에 아담하게 들어서고 지붕은 주황색이나 분홍색으로, 벽면은 하얀색벽돌과 타일로 곱게 단장하였을뿐 아니라 주택들사이에 조성된 야외정원들과 실내체육시설, 가로등과 주택들사이로 뻗어있는 차도로 등 아늑한 풍경은 현대적인 지방도시에 와있는 느낌을 준다. 건물들의 실내장식도 물리적 공간이나 제공하는데 그치였던 지난 시기와 달리 벽과 바닥재료, 가구배치와 조명설치들을 다채롭고 화려하며 세련되게 꾸미였을뿐 아니라 안전성과 편리성을 기본으로 하였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북은 세계적추세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감자재의 다양화, 다색화, 다기능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중평남새온실농장도 대단하다고 하였는데 얼마전 착공한 련포온실농장은 그에 비해 규모와 생산능력이 두배에 달하고 남새생산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환경관리, 작업공정의 자동화측면에서도 훨씬 발전된 기술과 설비들로 장비되며 온실농장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살림집 1 000여세대와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도 동시에 건설하여 거대한 하나의 농장지구를 새로 형성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수 없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의 건설정치가 안아온 기적적인 성과》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층은 북에 펼쳐진 건설의 대번영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안아온 기적적인 성과이라고 찬양하고있다.

그들은 북에서는 대규모건설사업들이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진행되고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송신, 송화지구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올해 화성지구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착공식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직접 건설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고있으며 군인들과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해주고 배려하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새로운 건설속도창조를 당부하고있다고 하면서 대규모주택지구인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신, 송화지구의 1만세대건설이 속도전식 건설로 세인의 화제를 모으게 된것도, 북에서 모든 건설대상들이 자연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특색, 북특유의 사회적성격이 잘 살아나면서도 주민들이 선호할수 있게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화, 예술화가 철저히 구현되는것도, 립면설계의 류사성과 반복이 엄금되고 건축물들이 다 개성이 살아나게 된것도, 가구와 비품까지도 구색이 맞게 갖춰지는것도 김정은국무위원장의 건축전문가이상의 비범한 안목과 놀라운 지도력, 건설정치가 안아온 기적적인 성과이라고 칭송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렬악한 주거환경, 사라지지 않은 《달동네》

남조선잡지 《주간경향》(2021년 8월 9일호)은 《주거빈곤은 옛일? 아이들이 지금 그곳에 산다》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에도 땅아래에, 무허가주택에, 방 한칸에, 컨테이너에, 모텔에, 교회에 아이들이 산다. 수도권에만 22만 7 000가구의 아이들이 주거빈곤속에서 크고있다. 이는 〈2020년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와 〈2021년 경기도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의 결과다.

주거빈곤은 최저주거기준(2인기준 면적 26㎡, 수세식화장실, 전용부엌 등)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환경과 옥탑방, 지하방 그리고 고시원, 모텔 등의 비주택거주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누군가는 〈달동네〉가 이미 사라지지 않았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제 주거빈곤은 과거의 기억일가. 서울, 경기에서만 22만 7 000가구의 아이들이 렬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있다는 보고서는 그간 아동주거빈곤을 알게 모르게 외면해온 사실을 알려준다.

렬악한 주거환경은 신체, 정서발달이 이루어지는 아동에게 다양한 류형의 상처를 입힌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정서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이 선명하게 확인됐다.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를 겪은적이 있다는 답변이 주거빈곤아동의 경우 3배 높았다. (서울시 전체아동 1.6%, 주거빈곤 아동 5.5%) 행동장애비률(1.6%) 또한 전체아동(0.9%)보다 높은 편이다. 지하, 옥상에 사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더 위태롭다.

주거빈곤은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자극한다.

서울시 주거빈곤아동 4명중 3명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 놀아본적이 없다.〉(74.3%)고 했다. 리유를 물었더니 〈집에 같이 놀 공간이 없어서〉(77.8%)라고 답한 아이들이 많았다.

주거빈곤속에 놓인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이르면 집을 피하기도 한다. 비좁은 공간에서 가족과 부대끼면 갈등이 잦을수밖에 없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 아이들의 립장에선 가출이다.

주거빈곤에 처한 아이들이 마음만 다치는것은 아니다. 몸도 또래에 비해 더 아프다.

주거빈곤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겪은 비률은 9.2%다. 전체아동가구(4.8%)에 비해 2배가까이 높은 수치다. 알레르기비염에 걸린 비률도 주거빈곤가정의 아동(13.9%)이 전체 아동가구(9.2%)보다 높았다. 지하, 옥상에 사는 아동은 천식과 중이염에 걸린 비률이 전체 아동가구에 비해 2배가까이 컸다.

주거빈곤속에 놓인 아이중 〈숙제나 독서를 할 공간이 있다.〉고 답한 아동은 15.4%뿐이다. 편하게 앉아 공부하기조차 어려운 아이들에게 〈노력하라.〉는 메쎄지가 힘을 발휘할수 있을가.

서울시 주거빈곤 아동가구중 절반이상이 월세(54.2%)를 내고 산다. 이들이 내는 평균월세는 전체 아동가구의 월세보다 높다. 묵돈이 없으니 보증금을 덜 내는 대신 월세를 더 부담한다.

주거비부담은 또다시 〈렬악한 주거〉로 돌아오기도 한다.

렬악한 주거는 부모와 아이에게 무기력을 안긴다.

무기력에 빠지거나 익숙해져 부모나 아이들조차 이사할 생각도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방법조차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교육여건은 주거상태에 따라 격차가 선명한데 아이들이 그리는 미래는 어떨가.》

본사기자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회의 의정으로 상정된 연필문제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의 력사에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국가가 실시한 수많은 인민적시책들이 기록되여있다.

본사편집국은 이번호부터 력사의 갈피에 새겨져있는 그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 *

해방전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의 후과로 조선사람들의 절대다수는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무지와 몽매속에서 헤매이였다. 하여 해방직후 북조선에만 하여도 문맹자가 230여만명이나 되였다.

문맹을 퇴치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과 문화수준을 높일수 없었으며 건국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해방된 조선의 모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문맹자들을 없애는 문제가 새로 수립된 중앙정권기관앞에 절박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문맹퇴치를 진행하는데서 제일 걸린 문제가 바로 연필문제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왜나라족속들이 조선의 자원을 략탈하여 그것으로 자기 나라에서 연필을 만들어 비싸게 팔아먹은것으로 하여 해방전 조선에는 연필공업이 없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새 조국건설을 위해 토의하셔야 할 중대사가 많으시였지만 주체35(1946)년 2월에 진행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필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의 후대들을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며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는 소원을 풀어주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문제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하루속히 연필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1946년 6월 조선의 첫 연필공장인 《삼천리》 연필공장이 세워지고 개인기업가들도 연필을 생산하게 되였다.

이러한 속에 연필을 생산하는 민간업체들의 국가납부세금액을 감면하고 연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자들을 보충해주기 위한 국가적 조치들도 취해졌다.

1947년초에 이르러 《삼천리》 등의 상표를 단 우리 연필들이 쏟아져나와 연필에 대한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고 연필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후대교육과 성인들의 문맹퇴치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공화국에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도 연필생산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였으며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제일 선참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연필공장이 꾸려졌다.

오늘도 공화국인민들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연필문제가 의정으로 상정된 이야기를 사랑의 전설로 전해가고있다.

본사기자 림 광 훈

룡봉학용품공장에서 질좋은 학용품들을 생산하고있다.

독자문답 재중동포 김찬이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실시되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은 어디에 있는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공화국인민교육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통신교육망, 원격교육망,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계 등 여러가지 교육형태들로 이루어져있다.

공화국에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만 아니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에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왔다.

1947년 처음으로 전국각지에 수많은 성인학교와 성인중학교가 나왔으며 대학과 전문학교에 통신 및 야간교육체계가 창설되였다.

이 교육체계는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왔으며 이로하여 1958년말에는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이 중학교 졸업정도이상으로 높아지게 되였다.

지금은 수많은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함께 정연한 원격교육체계가 세워져 누구나 일생동안 공부를 계속하고있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은 거의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들과 생산기업소에 병설되여있으므로 교육일군들과 교육시설, 실험실습조건 등 교육조건들이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그리고 생산활동과 본신 사업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하기때문에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공화국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펼쳐진 원격교육망을 통한 교육체계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교육체계이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학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의 원격교육망을 통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훌륭히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들을 통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은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무엇을 위해? (1)

사람이 직업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것이다.

흔히 건강, 돈, 편리함 등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것이 많은 나라들에서 보편화된 오늘날 사람들은 그 조건에 부합되는 직업을 선택하며 거기에서 애착을 갖고 보람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생존활동에 연연하는 리기적욕구에 불과하다 해야 할것이다.

하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교육자가 되였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 대답을 찾기 위해 모색하던 날이 적지 않았던 나는 어느날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날은 지금으로부터 몇년전 조국의 지도우에 하나의 작은 점으로 찍혀진 랍도에 대하여 알게 된 날이였다.

평안북도안의 수백개 섬들중에서 물과 제일 멀리 떨어져있는 이 외진 섬에 나에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여준 주인공이 살고있다.

20여년전 어느날 깊은 밤 한 녀인이 지도를 펼쳐든채 책상앞에 마주앉아있었다.

신의주교원대학부속 인민학교(당시) 교원 인정순이였다.

그는 지도에서 어느 한 섬을 찾고있는중이였다. 한참만에야 겨우 자그마한 점과 함께 《랍도》라는 글자가 눈앞에 밝혀왔다.

그의 뇌리에서는 함께 퇴근길에 올랐던 교장이 얼마전 국가적인 조치에 의해 무인도였던 랍도에 등대가 새로 서고 등대원들의 자식들을 위한 분교가 일떠서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랍도분교에 자원진출한 대학졸업생처녀가 며칠전 급병으로 큰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되려면 몇달은 실히 걸려야 한다고 하던 말이 좀처럼 사라질줄 몰랐다. 인정순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왜서인지 정신이 새록새록 맑아지며 쉬이 잠들수 없었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지도를 펼쳐들고 또다시 랍도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도, 그 다음날도 남편에게 끝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남편이 자기의 공장을 얼마나 사랑하고있는지, 열살 안팎의 어린 두 아들까지 모두 데리고 정든 곳을 떠나 외진 섬으로 들어간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바가 아니기에 섬분교 교원이라는 말을 쉽게 외울수 없었고 선뜻 결심을 내릴수는 더욱 없었던것이다.

그로부터 며칠후 인정순은 집에 온 친정어머니에게 그동안 품고있던 속생각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얼마간 깊은 침묵이 흐르던 끝에 어머니는 혼자소리인듯 뇌이였다.

《그러니 분교는 섰는데 교원이 없단 말이지.》

이윽토록 딸을 여겨보던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지난해 7월 어버이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를 다지던 때를 잊지야 않았겠지. 넌 그때 뭐라고 했니. 전쟁로병의 딸답게, 전시공로자의 딸답게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언제나 앞장서겠다고 결의다지지 않았니.》

어머니는 딸에게 절절히 말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그리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조국의 미래를 지키시려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걷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에 대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기들의 맹폭격속에서도 초소를 뜨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 교환대를 지켜낸 어제날의 처녀교환반장이였던 어머니의 이야기는 인정순의 가슴을 새삼스럽게 파고들었다.

그날 공장의 혁신자이며 청년동맹초급일군인 남편은 인정순에게 말했다.

《그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거요. 그러나 끌까지 갈 길이면 난 반대없소.》

이튿날 인정순은 아침일찍 학교로 출근하여 교장실에 들어섰다. 이윽고 울리는 나직한 목소리.

《제가 랍도로 가겠습니다.》

《!》

그는 이렇게 섬분교의 교원이 되였다.

재중동포 김 영 란